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재학생 집필 주목

✎ 정옥환 기자 | ⓒ 승인 2025.01.23 11:46

동물보건사 임상실습지침서 출간, 동영상 콘텐츠로 차별화



▲ 대학생이 최초로 동물보건사 임상실습지침서를 출간한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김충현 지도교수와 집필 학생들.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재학생들이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동물병원 현장 실습을 혁신적으로 재정립해 직접 집필한 동물보건사 임상실습지침서를 출간, 주목된다.

이번 지침서는 동물보건 분야에서 대학생이 직접 작성한 최초의 지침서로 주목받고 있다.

학생들이 기존의 동물병원 실무 관련 도서와 간호학 실습 매뉴얼을 참고하며,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반영해 현장감 넘치고 실용적인 내용을 자신의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 지식을 담아냈다.

이 지침서의 가장 큰 차별점은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와 영상학부의 크루(CREW)를 통한 협력으로 탄생한 탄탄한 동영상 콘텐츠다.

개 채혈보정법, 알약 투여보정법 등 동물보건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25개 주요 실습 내용을 QR 코드를 통해 유튜브와 연동시켰고,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기존 교육 방식의 경계를 허물고 실습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지침서를 기획한 동물보건복지학과 김충현 교수는 "기존 교재들이 공급자인 교수의 입장에서 집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 결과가 매우 훌륭해 열정 있는 몇몇 학생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학생들은 '기둥'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결성하고 동영상 제작의 어려움은 문화영상학부 진승현 교수와 학생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서대학교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동물복지와 보건의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동물보건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지침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동물보건사들에게도 길잡이 역할을 하여 동물 사랑과 보건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박고운 학생은 "작년 초 김충현 교수님으로부터 임상실습지침서 제작 제안을 받았을 때 학생들의 힘으로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있었고, 동영상 제작과 이를 책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초대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이신 홍하일 교수님의 감수와 문화영상학부와 협력이 이뤄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아산=정옥환기자



정옥환 기자 coh5949@hanmail.net